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ze of the Altered School Uniforms of High School Girls in Cheju and the Level of Their Satisfaction

권숙희 · 김혜정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Kwon, Sook-Hee · Kim, Hye-J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high school girls' alteration of school uniforms concerned about both siz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nd to improve the size of school uniforms. The subjects were 1,007 girls attending high schools in Cheju.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from July 8th to Sep. 21th, 2001. According to the survey, 67.3 percentile of the interviewed girls altered their uniforms. It was appeared that they altered skirts more than blouses as a way of shortening. The main reason of alteration is ill-fitting uniforms, most of girls had a positive idea to alterate uniforms. Dissatisfaction of uniforms is mainly caused by the large size not by the small size. It was appeared that dissatisfaction rate of skirt was higher than that of blouse. The large part of dissatisfaction was appeared on waist circumference of blouse and hem circumference of skirt. The girls who experienced altering the part of uniforms such as waist circumference of skirt, skirt length and hem circumference had high satisfaction rate. And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forms-size-satisfaction/dissatisfaction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shion, factors-aesthetics and factors-activity of skirt and blouse.

Key words : alteration, siz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uniforms satisfaction

I. 서론

청소년기에 있어 의복은 자신감의 획득, 동년배 집단과의 동조 및 개성을 추구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상태가 그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착용하는 의복은 그들의 생활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통학복으로 착용하는 시간이 긴 만큼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교복은 다른 기성복과는 달리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3년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복만족도 및 외관은 맞춤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장혜경·김인숙, 1999).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개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기성교복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크며, 다수의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수체계는 아직 불충분하다. 또

Corresponding autor: Kwon, Sook Hee
Tel: 064) 754-3532, Fax: 064) 725-2591
E-mail: sookhee@cheju.ac.kr

한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김희련, 1994; 원경해, 1999) 여고생들은 착용 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게 되었고(박정희, 1998; 이해경, 2000; 이소은, 2001),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과도한 교복 변형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복 변형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1997.03.27; 이해경, 2000). 그동안 교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는 많으나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하는 교복 변형을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에게 중요한 논점인 교복 변형실태를 파악하고 교복 변형과 관련한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가 교복 변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교복 변형, 치수 불만족 부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복 치수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교복 치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여고생들의 교복 변형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여고생들의 치수만족도를 조사하여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밝히며, 셋째 여고생들의 교복만족도를 조사한 후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넷째 여고생들의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II. 청소년기의 교복 변형행동

여고생들은 중학생의 급격한 성장과는 달리 완만한 성장곡선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의 라인을 살린 교복을 착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으므로(박영애, 1998; 박정희, 1998) 교복 치수는 여고생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성 교복 업체의 치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김희련, 1994; 김덕하, 2000). 이런 교복에 대한 치수 불만족은 교복을 변형하여 입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박정희, 1998; 이해경, 2000; 이소은, 2001), 유행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어(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학교측의 생활지도 선도차원에서 심각한 학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모에 관심이 큰 청소년기의 여고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와 관심있는 소규모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교복 변형에 동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으며 교복 변형을 하나의 개성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또한 여고생들은 교복도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해경, 2000).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도 교복 변형 행동은 교복을 단순히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넘어, 청소년들이 하루의 절반정도를 착용하고 있는 하나의 의복으로 인식할 때 교복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교복 변형을 하는 학생들의 특징에 관한 조사에서는 이들은 특별한 특성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활발하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한다'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비행 및 저항행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현방식이라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복 변형(수선)의 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82.3%,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1년간 교복을 변형한 응답자가 52.7%,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64.9%가 교복을 변형(수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수선)의 이유를 살펴보면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바느질한 곳이 뜯어져서', '유행에 맞게 입으려고'의 순이며,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유행'의 순이었고,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 체형에 맞

게 고치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므로, '교복이 너무 크게 나와서'의 순으로 교복을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친다'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들을 살펴볼 때 고등학생들은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거나, 치수가 너무 크게 나오는 등 치수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일반적 특성과 교복 변형 실태 관련 문항, 치수 만족/불만족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일반적 특성은 학교, 학년, 가족월수입, 교복 구입형태, 구입벌수 등 총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질문항목들은 자유응답형과 선택강요형으로 구성되었다.

교복 변형 실태는 교복 변형 경험 유무, 교복 변형 부위(하복의 블라우스, 스커트), 교복 변형의 이유, 변형하지 않는 이유, 변형에 관한 견해 등 5개의 질문항목들이 포함되었다. 교복 변형 경험 유무, 변형의 이유, 변형하지 않는 이유, 변형에 관한 견해를 묻는 4개의 측면의 문항들은 선택강요형으로 측정되었고, 교복 변형 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3개의 질문항목들은 복수응답형으로 측정하였다. 교복 변형 부위는 7점 평정척도로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내에서 블라우스 10개 부위와 스커트 6개 부위를 제시한 후 각 부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변형정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치수 만족/불만족은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 2개의 측면의 질문항목들이 포함되었다.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은 7점 평정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블라우스 10개 부위와 스커트 6개 부위를 제

시한 후 "매우 크다·길다"(1점), "크다·길다"(2점), "약간 크다·길다"(3점), "적당하다"(4점), "약간 작다·짧다"(5점), "작다·짧다"(6점), "매우 작다·짧다"(7점)에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은 1(매우 크다·길다)에서 3(약간 크다·길다)까지 응답한 경우, "만족"은 4(적당하다)에 응답한 경우, "작거나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은 5(약간 작다·짧다)에서 7(매우 작다·짧다)까지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의 질문은 자유응답형(개방형)으로 측정되었다.

교복만족도는 디자인 및 유행성, 활동성, 신분상징성, 관리성, 경제성 측면과 관련한 총 32개의 문항을 선행연구(이송자, 1980; 이상희, 1996; 이해경, 2000; 최종명·김희숙, 2000)에서 발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경제성 측면을 포함하는 8문항은 여러 요인에 대해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갖거나 다른 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고생으로 5개의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7월 18일부터 21일에 걸쳐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교복의 구입 경험이 없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193부를 제외한 총 1,00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교복 구입 및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1학년이 38.1%, 2학년이 30.8%, 3학년이 31.1%으로 1학년의 빈도가 많았다. 가족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42.3%를 차지하였다. 교복의 구입형태는 응답자의 74.1%에 해당하는 740명이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벌수를 살펴보면 블라우스는 2벌을 구입한 경우(63.5%)가 가장 많았으며, 스커트는 1벌을 구입한 경우(81.8%)가 가장 많았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SPSS)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백분율,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t-test, 일원분산분석,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교복 변형실태

교복 변형은 <표 1>과 같이 전체 67.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복 변형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교복 변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내에서 교복 변형 부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블라우스보다 스커트에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스커트 길이에서 82.0%의 높은 변형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고애란 등, 1999; 황진숙 등, 2002)의 교복 변형의 유형 조사에서 스커트 길이 변형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블라우스에서는 어깨너비·허리둘레(21.9%) 부위에서 변형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커트는 스커트 길이 다음으로 스커트 주름(69.5%), 밑단둘레(63.2%), 엉덩이둘레(51.8%)부위 순으로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치수를 줄이는 변형으로 줄이는 정도 또한 약간 줄임에서 매우 많이 줄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교복의 너비, 둘레 및 길이를 줄여 짧고 타이트하

<표 1> 교복 변형의 경험 유무

변형 경험	유	무	합계
빈도(%)	675(67.3)	328(32.7)	1003(100)

<표 2> 교복 변형 부위

n=628 (주름 제외)

변형 경험		있 다 N(%)	없 다 N(%)
블 라 우 스	목 둘레	41(6.5)	587(93.5)
	어깨너비	183(29.1)	445(70.9)
	앞 품	115(18.3)	513(81.7)
	뒤 품	115(18.3)	513(81.7)
	가슴둘레	124(19.7)	504(80.3)
	허리둘레	183(29.1)	445(70.9)
	진동둘레	109(17.4)	519(82.6)
	블라우스 길이	132(21.0)	496(79.0)
	소매통	131(20.9)	497(79.1)
	소매길이	106(16.9)	522(83.1)
스 커 트	허리둘레	253(40.3)	375(59.7)
	배 둘레	208(33.1)	420(66.9)
	엉덩이둘레	325(51.8)	303(48.2)
	스커트 길이	515(82.0)	113(18.0)
	밑단둘레(스커트 폭)	397(63.2)	231(36.8)
	주름(n=508)	353(69.5)	155(30.5)

(※ 주름변형 : 주름을 깊게 박거나 주름박음선 길이를 늘려 스커트 폭을 줄이는 변형으로, 1개의 고등학교에서 주름이 없는 플레어스커트로 인해 제외됨)

<표 3>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변형 정도

n=628(주름제외)

변형 부위	변형 정도	← 고치지 않음 →						
		매우 많이 줄임	1	2	3	4	5	6
블라우스	목둘레	5	4	30	587	1	1	.
	어깨너비	8	29	143	445	2	1	.
	앞 품	4	17	91	513	2	1	.
	뒤 품	4	16	92	513	2	1	.
	가슴둘레	3	14	103	504	3	1	.
	허리둘레	4	28	146	445	4	1	.
	진동둘레	4	14	88	519	1	2	.
	블라우스 길이	2	15	112	496	1	2	.
	소매통	3	16	110	497	1	1	.
스커트	소매길이	2	9	92	522	2	1	.
	허리둘레	14	39	192	375	8	.	.
	배둘레	9	32	163	420	4	.	.
	엉덩이둘레	13	49	258	303	5	.	.
	스커트 길이	19	95	381	113	18	2	.
	밑단둘레 (스커트 폭)	19	77	295	231	6	.	.
	주름(n=508)	15	48	288	155	2	.	.

(※ 주름변형: 주름을 깊게 박거나 주름박음선 길이를 늘려 스커트 폭을 줄이는 변형으로, 1개의 고등학교에서 주름이 없는 플레어스커트로 인해 제외됨)

계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연구에서도 스커트 폭과 재킷의 품 및 길이를 줄이는 변형이 많은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백승희(2000)의 교복 형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짧고 허리가 들어간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제주도 여고생들의 교복 변형의 이유,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4>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복 치수 변형의 이유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38.8%로 가장 높았으며,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규제 때문에'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는 <표

<표 4> 교복 변형의 이유

	유행이므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불편해서	자기스타일(개성)이 아니므로	뜯어지거나 터져서	기 타	합 계
빈도	126	265	408	49	153	19	31	1051*
(%)	(12.0)	(25.2)	(38.8)	(4.7)	(14.6)	(1.8)	(2.9)	(100)

*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는 응답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5>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

	치수가 잘 맞아서	번거로우서	활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	학교규제 때문에	신체성장을 고려해서	기 타	합 계
빈도	103	239	47	378	42	35	844*
(%)	(12.2)	(28.3)	(5.6)	(44.8)	(5.0)	(4.1)	(100)

*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는 응답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6>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

교복 변형에 관한 견해	빈도(%)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맞게 고쳐서 입을 수 있다.	493(33.6)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	375(25.6)
학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복을 고치는 것은 괜찮다.	264(18)
교복도 유행에 맞추어 고쳐 입을 수 있다.	168(11.5)
몸의 곡선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므로 싫다.	63(4.3)
활동하기 불편할 것이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50(3.4)
교복다움이 없어지므로 싫다.	42(2.9)
기 타	11(0.8)
합 계	1466*(100)

*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는 응답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6>과 같이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몸에 맞게 고쳐 입을 수 있다(33.6%)', '각자의 개성이므로 괜찮다(25.6%)' 등의 견해가 높게 나타나 교복 변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이해경, 2000)에서 교복 변형에 대한 의견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조사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블라우스보다 스커트가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에서도 치수가 작거나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 보다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블라우스의 허리둘레(32.4%)와 스커트의 밑단둘레(39.9%)에서 치수가 커서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 대부분이 교복 치수에 있어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 부위는 변형율이 높은 부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블라우스의 허리둘레, 블라우스 길이 및 어깨너비와 스커트의 길이 및 밑단둘레 부위는 변형율이 높은 부위임과 동시에 치수 불만족율도

<표 7>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부 위	치수 만족/불만족	불만족		만족	합계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	작거나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		
		N(%)	N(%)		
블 라 우 스	목둘레	304(30.5)	21(2.1)	673(67.4)	998(100)
	어깨너비	258(25.9)	109(10.9)	631(63.2)	998(100)
	앞폭	261(26.2)	115(11.5)	621(62.3)	997(100)
	뒤폭	236(23.7)	113(11.3)	648(65.0)	997(100)
	가슴둘레	244(24.4)	125(12.5)	630(63.1)	999(100)
	허리둘레	323(32.4)	59(5.9)	615(61.7)	997(100)
	진동둘레	185(18.6)	116(11.7)	694(69.7)	995(100)
	블라우스 길이	213(21.4)	170(17.1)	613(61.5)	996(100)
	소매통	172(17.3)	161(16.2)	663(66.6)	996(100)
스 커 트	소매길이	164(16.4)	95(9.5)	739(74.0)	998(100)
	허리둘레	368(36.8)	101(10.1)	532(53.1)	1001(100)
	배둘레	310(31.0)	115(11.5)	576(57.5)	1001(100)
	엉덩이둘레	326(32.6)	91(9.1)	583(58.3)	1000(100)
	스커트 길이	359(35.9)	104(10.4)	538(53.7)	1001(100)
	밑단둘레(스커트폭)	399(39.9)	56(5.6)	546(54.5)	1001(100)

* 무응답 또는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는 응답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변형율과 치수 불만족율이 높은 이 부위에 대한 치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복 치수에 대한 불만점과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자유응답식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스커트 폭이 커서 활동이 불편하다(33.8%)'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다(17.1%)', '체형에 맞지 않고 사이즈도 없으며 또한 업체별로 치수가 틀리다(16.7%)', '스커트 길이가 길다(5.7%)', '어깨너비가 크다(4.8%)'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 개선 및 요구사항에는 스커트 폭 및 학생취향에 맞는 교복 치수 개선의 요구가 가장 많았고 교복 치수체계의 세분화, 다양화, 통일화의 의견도 많았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스커트의 활동 불편성으로 스커트와 바지를 병행해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2-1.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블라우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스커트는 <표 8>과 같이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스커트 길이 및 밑단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변형과

치수 불만족이 높은 스커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이 변형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치수에 대한 만족율이 높았다. 불만족에는 변형 경험이 없는 집단이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면 변형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교복 치수에 대하여 만족하고 반면 교복을 변형하지 않고 착용하면 치수가 커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수에 대한 불만족은 변형의 경험이 있어도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나 줄이는 변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복 치수가 커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복만족도

본 연구는 교복만족도 차원들을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법, 고유값 1.00이상)한 결과 <표 9>와 같이 5개의 요인 즉,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 신분상징적 만족도 요인,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 관리 불만족도 요인,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4.4%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0.59$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신뢰도를 나

<표 8> 교복 변형에 따른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

	변형 경험	불만족		만족 N(%)	전체 N(%)	χ^2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	작거나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			
		N(%)	N(%)			
허리둘레	있다	220(32.7)	78(11.6)	374(55.7)	672(100)	16.121***
	없다	147(45.1)	23(7.1)	156(47.9)	326(100)	
배둘레	있다	197(29.3)	78(11.6)	397(59.1)	672(100)	2.626
	없다	112(34.4)	36(11.0)	178(54.6)	326(100)	
엉덩이둘레	있다	204(30.4)	68(10.1)	399(59.5)	671(100)	5.810
	없다	121(37.1)	23(7.1)	182(55.8)	326(100)	
스커트 길이	있다	211(31.4)	86(12.8)	375(55.8)	672(100)	24.964***
	없다	148(45.4)	18(5.5)	160(49.1)	326(100)	
밑단둘레 (스커트 폭)	있다	244(36.3)	46(6.8)	382(56.8)	672(100)	14.218**
	없다	154(47.2)	10(3.1)	162(49.7)	326(100)	

p < .01 *p < .001

<표 9> 교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교복만족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중 설명비율 (%)	신뢰도계수
요인 1: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 우리 학교 교복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하여 만족한다. · 교복 색상이 마음에 든다 · 디자인이 유행에 뒤지고 청소년의 감각에 맞지 않는다. · 우리학교 교복은 상·하 비례가 맞는다 · 우리학교 교복은 나에게 어울린다. ·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859 .803 .777 .697 .546 .530 .468	6.344	15.922	.8475
요인 2: 신분 상징적 만족도 · 교복은 소속감이 생기고 급우들과 어울리기에 더 편하다. · 교복을 입으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 교복을 입으면 집단 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 ·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 학생신분에 알맞고 단정해 보인다. ·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 아침마다 옷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739 .724 .648 .645 .633 .591 .567 .560	2.413	15.266	.8303
요인 3: 상의 활동 불만족도 ·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불편하다. · 몸을 뒤로 재길 때 불편하다. ·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불편하다.	.801 .758 .622	1.776	8.473	.7092
요인 4: 관리 불만족도 · 보풀이 잘 생긴다. · 여러번 세탁하면 교복 모양이 변한다. · 세탁과 손질이 쉽다.	.775 .770 .586	1.436	7.465	.6000
요인 5: 하의 활동 불만족도 ·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함을 느낀다. · 스커트가 바람에 날려 불편하다. · 하의가 스커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711 .710 .650	1.085	7.266	.5917

타내었다.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 신분 상징적 만족도 요인,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

<표 10> 교복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값

교복만족도	M (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2.66E-16 (1.0)
신분 상징적 만족도	5.58E-17 (1.0)
상의 활동 불만족도	1.14E-16 (1.0)
관리 불만족도	1.56E-16 (1.0)
하의 활동 불만족도	5.40E-17 (1.0)

인, 관리 불만족도 요인,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 순으로 나타나 제주도 여고생들의 교복 착용 시 스커트가 활동에 불편함을 주어 교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해양성 기후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스커트 폭이 큰 것은 스커트가 다리에 감기거나 올라가는 등 오히려 활동하는 데 더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1.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분 상징적 만족도 요인과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신분 상징적 만족도는 높지만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을 느끼지만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이 학생신분 및 집단 규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학교 규제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표 5> 참조). 그러나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여고생들의 변형태도는 교복만족도 하위 요인 중 품위 및 안락감과 관계가 있으며, 교복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이 품위 및 안락

감이 높게 나타나 교복 변형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지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각 부위에 대하여 지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 상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 및 하의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블라우스의 목둘레, 어깨너비, 앞품, 뒤품, 가슴둘레, 및 진동둘레 부위에서 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커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블라우스 길이와 스커트의 엉덩이둘레, 스커트 길이, 밑단둘레 부위에서는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커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는 블라우스에서 목둘레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커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에서는 스커트 길이와 밑단둘레 부위에서 커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변형 경험 교복만족도	있다 (n=623)	없다 (n=305)	t값
	M(S.D.)	M(S.D.)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0.016(1.024)	0.027(.952)	-622
신분 상징적 만족도	-0.083(1.007)	.176(.968)	-3.733***
상의 활동 불만족도	0.030(1.028)	-0.056(.929)	1.230
관리 불만족도	-0.011(1.052)	0.093(.882)	-.285
하의 활동 불만족도	-0.064(1.023)	.126(.943)	-2.722**

p <.01 *p <.001

<표 12> 블라우스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상의 활동 불만족도
목둘레	크의 불만족(n=281)		-.170 b	.008
	만족(n=622)		.072 a	-.019
	작음의 불만족(n=20)		.114 ab	.452
	F값		5.833**	2.163
어깨너비	크의 불만족(n=243)		-.170 b	-.081 b
	만족(n=579)		.067 a	-.029 b
	작음의 불만족(n=101)		.022 ab	.366 a
	F값		4.865**	7.898***
앞몸	크의 불만족(n=246)		-.145 b	-.075 b
	만족(n=572)		.081 a	-.059 b
	작음의 불만족(n=104)		-.081 ab	.502 a
	F값		4.820**	15.194***
뒤몸	크의 불만족(n=224)		-.162 b	-.142 b
	만족(n=595)		.075 a	-.023 b
	작음의 불만족(n=103)		-.061 ab	.440 a
	F값		4.873**	12.629***
가슴둘레	크의 불만족(n=230)		-.217 b	-.147 b
	만족(n=580)		.073 a	-.031 b
	작음의 불만족(n=114)		.058 ab	.458 a
	F값		7.247**	15.163***
허리둘레	크의 불만족(n=301)		-.076	-.059 b
	만족(n=569)		.045	-.009 b
	작음의 불만족(n=53)		-.094	.422 a
	F값		1.648	5.282**
진동둘레	크의 불만족(n=176)		-.176 b	-.098 b
	만족(n=636)		.059 a	-.062 b
	작음의 불만족(n=109)		-.068 ab	.548 a
	F값		4.056*	19.129***
블라우스 길이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n=202)		-.190 b	-.199 b
	만족(n=562)		.048 a	-.076 b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n=158)		.069 a	.526 a
	F값		4.726**	29.048***
소매통	크의 불만족(n=167)		-.163	-.164 b
	만족(n=611)		.035	-.061 b
	작음의 불만족(n=144)		.045	.448 a
	F값		2.752	18.452***
소매길이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n=156)		-.158	-.081 b
	만족(n=681)		.039	-.049 b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n=86)		-.016	.531 a
	F값		2.475	13.758***

교복 각 부위에 대한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치수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대체적으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요인과 활동 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아서 불만족

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은 반면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표 13> 스커트 각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

부위별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하의 활동 불만족도
허리둘레	크의 불만족(n=336)		-.010	.063
	만족(n=497)		-.007	-.019
	작음의 불만족(n=93)		.052	-.099
	F값		.154	1.194
배둘레	크의 불만족(n=285)		-.068	.028
	만족(n=534)		.007	.008
	작음의 불만족(n=107)		.126	-.092
	F값		1.512	.579
영덩이둘레	크의 불만족(n=300)		-.151 b	.080
	만족(n=543)		.040 a	-.028
	작음의 불만족(n=82)		.263 a	-.093
	F값		6.758**	1.529
스커트 길이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n=334)		-.213 b	.120 a
	만족(n=499)		.091 a	-.076 b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n=93)		.250 a	.002 ab
	F값		12.839***	3.864*
밑단둘레 (스커트 폭)	크의 불만족(n=371)		-.260 b	.125 a
	만족(n=504)		.162 a	-.085 b
	작음의 불만족(n=51)		.246 a	-.022 ab
	F값		21.645***	4.768**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TV매체나 언론들, 연예인들의 바디 이미지들이 점차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상형의 기준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는(박우미, 1993; 최봉순, 1998; 남윤자·이승희, 2001) 사회적 풍토의 조성이 모방의 심리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여고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여고생들은 슬림한 라인의 옷을 선호하고, 맞거나 작아야 날씬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옷을 착용하였을 때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착용한 의복이 커서 타인보다 더 뚱뚱해 보인다면 이는 곧 교복 불만족으로 이어져 교복을 변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율이 높은 스커

트가 다른 부위보다 변형이 많은 이유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 변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7.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형은 대부분 블라우스 보다 스커트에서 줄이는 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 부위로는 블라우스에서는 어깨너비, 허리둘레, 블라우스 길이, 가슴둘레 부위 순으로 변형을 많이 하였으며 스커트는 스커트 길이, 주름, 영덩이둘레 부위 순이었다. 변형의 가장 큰 이유로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였으며 대부분이 교복 변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치수 만족/불만족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치수의 불만족은 작거나 짧은 길이에 대한 불만족보다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으며, 특히 스커트 부위에서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커서 불만족한 부위로는 블라우스에서는 허리둘레, 스커트는 밑단둘레부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치수 불만족 부위는 변형율이 높은 부위와 일치하고 있어 이 부위의 패턴제작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 것이다. 교복 치수의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스커트 폭이 커서 불편하다(33.8%)'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교복치수가 전체적으로 크다(17.1)', '체형에 맞지 않고 사이즈도 없으며 또한 업체별로 치수가 틀리다(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블라우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스커트는 허리둘레, 스커트 길이 및 밑단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변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치수에 대한 만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에서는 변형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복 변형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복 변형 경험이 없는 학생이 신분 상징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하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치수 만족/불만족에 따른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상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커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은 만족하거나 작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집단보다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제주지역 여고생들은 교복 치수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치수의 불만족은 교복변형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교복만족도에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 및 활동 불만족

도 요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결과의 적용 및 제언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여고생은 다양한 부위에서 교복 변형 경험이 있으며 변형하는 부위는 대부분의 치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라우스의 허리둘레, 스커트의 길이 및 폭 등과 같이 변형율과 치수 불만족율이 높은 부위의 대한 치수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교복 업계에서는 교복 설계 시 이 부위에 대한 과도한 여유설정을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수 불만족 및 교복 변형 정도에 따라 하나의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으로 나뉘어짐을 상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좀 더 교복의 패턴체제도 세분화하여 여고생의 각 부위별 특성 및 선호도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업계 모두의 산학협동에 의한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주지역 여고생들은 절반이상이 스커트 부위에서 변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거나 긴 길이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교복 만족도 중 스커트가 커서 느끼는 하의 활동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복 치수의 대한 불만사항 조사에서도 스커트 폭에 대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커서 느끼는 불만족은 교복만족도에서 유행 및 심미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미성과 기능성 측면을 고려한 교복 스커트 디자인 개발 및 스커트 폭 수정 등의 개선점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며 바지 병행 착용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교복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구체적으로 각 부위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갖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치수만족도와 교복변형에 대한 측정에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에 선정함에 있어 치수 불만족 및 교복 변형정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집단을 구분하고 교복 변형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각 집단의 교복 변형행동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 고등학교가 제주

지역으로 국한되어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착의 시 느끼는 치수 만족도는 그 시대의 패션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경향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 결과를 고찰할 경우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복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는데, 하복은 가격의 저렴성으로 인해 교복을 변형하기 보다는 재구입하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착용기간이 짧아서 교복 변형을 파악하는데 다소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주제어: 교복 변형, 치수 만족/불만족, 교복만족도

참고문헌

고애란 · 김양진 · 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3, 31-41.

김덕하(2000), 성장률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련(1994), 남자중학생 교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윤자 · 이승희(2001), 한 · 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동아일보(1997), 여중고생 「교복개조」 유행...치마는 짧게 블라우스는 꼭끼게, 1997년 3월 27일자.

박영애(1998),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박정희(1998), 여고생의 교복착용태도와 의복행동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희(2000), CAD를 이용한 교복디자인 개발 경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경해(1999), 여자중학생의 체형특성과 교복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희(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은(2001),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송자(1980), 여고생 교복의 실태와 기능성에 관한 조사 연구-하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 · 김인숙(1999), 여고생(16~18세)의 체형분류(제1보)-정면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3(6), 876-885.

최봉순(1998), 대구지역 여대생의 체형 불안도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52(2), 75-81

최종명 · 김희숙(2000), 여고생 하복의 착용만족도 및 하복용 직물의 쾌적성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11), 105-114.

황진숙 · 안명화 · 용유진 · 유승연(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2002. 08. 16 접수)